

노병성 | 협성대학교 교수

**정신과 기술의 예술적 결합
가르치는 선진 출판교육**

출판산업이 국가의 문화 기간산업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출판교육은 문화산업의 초석을 다지는 백년대계의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세계 각국들은 출판교육에 대한 나름의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소위 출판대국이라 부를 수 있는 미국과 영국 등에서의 출판교육은 광범위하고, 체계적이며, 복잡적이다. 미국과 영국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출판선진국에서 행하고 있는 출판전문인 양성의 복잡성은 아마도 출판자체가 '정신과 기술의 예술적 결합을 시도하는 하나의 사회·문화적 경제행위'라는 개념의 광범위성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출판교육의 다기성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영국의 출판교육을 간단하게 범주화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출판교육과 출판전문인 양성의 지원사업을 예로 들 수 있다. 1953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의해 설립된 USIAU.S. Information Agency는 출판을 통해 미국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도서출판 프로그램을 실시했는데, 그 중에는 번역지원사업, 교과서 지원사업, 조사연구사업 등이 있었다. 특히 출판교육과 관련해서는 세계 출판인들을 자국으로 초빙하여 출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환프로그램을 시행했을 뿐 아니라, 자국의 출판전문가들이 해외의 전문학회, 세미나, 워크숍 등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기도 하였다.

둘째, 각종 출판관련단체들의 교육프로그램이 있다. 출판관련단체들이 주관하는 교육은 대체로 전문적이고 일회적인 성격이 강하며, 기존 출판인의 재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미국출판시장의 확대, 미국과 세계에서 출판인의 지위향상, 지적자유의 확대, 회원간 정보교류, 지적 소유권 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미국출판인협회(AAP)는 회원들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일례로 오는 10월 2일부터 3일까지는 '도서출판산업에 대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원들에게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미국서적상연합회(ABA)도 마찬가지로



지다. 북미중소출판인협회(SPAN)의 경우 금년 10월 24일에서 26일까지 로스앤젤레스 매리어트 호텔에서 출판판매기법, 이윤증대방법, 효과적인 PR 등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미국잡지출판인협회(MPA)도 역시 해마다 많은 세미나를 개최해 회원들을 재교육시키고 있다.

한편 영국의 도서, 정기간행물 및 전자출판발행인들의 모임인 출판인협회(PA)는 출판트레이닝, 세미나 그리고 각종 컨퍼런스를 공시하고, 전자출판 포럼을 조직화해 회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셋째, 출판전문인 양성이 대학과 대학원의 출판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문학시장연감 U.S. Literary Market Place'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출판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대학 프로그램은 총 63개이다. 물론 63개 모든 대학 프로그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출판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은 아니

다. 일부 프로그램은 문예창작, 글쓰기 프로그램으로 광의의 출판교육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미국대학에서의 출판 인력양성은 대부분 저널리즘학과나 전공에서 개별과목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저널리즘학과에서는 대체로 신문전공, 잡지전공 등 세분화된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데, 출판에 필요한 편집, 기사작성 등을 기본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다. 특히 거의 모든 대학이 잡지교육을 필수적으로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독립된 출판프로그램이 설치된 대학도 상당수에 이른다. 뉴욕시티대학의 '출판프로그램', 전자출판, 편집, 도서출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버지니아 대학교의 '출판 및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알칸사스주립대학교의 '저널리즘 및 인쇄학과', 콜롬비아대학교의 '콜롬비아 출판코스', 로체스터대학의 '프린터미디어 스쿨', 스탠퍼드 대학교의 '스탠퍼드 출판코스',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버클리)의 '카피편집프로그램', 코네티컷 대학교의 '출판과정', 콜로라도 덴버대학교의 '퍼블리싱 인스티튜트' 등이 출판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곳들이다.

물론 미국에는 출판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석사학위 과정도 있다. 이에 대표적인 것은 아마도 뉴욕대학교(NYU)의 출판센터Center for Publishing에서 개설한 석사학위 과정일 것이다. 뉴욕대학교 평생교육원 내에 설치된 출판센터에는 도서출판전공, 잡지출판전공, 전자출판전공이 있는데,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출판에 관한 기초과목을 수강하고, 전공별 심화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학생들은 '출판관리', '정보 및 인터페이스 디자인', '출판기업경영론', '재정분석론', '출판마케팅론', '인터넷과 출판', '출판법규론', '출판인쇄기술론', '도서·잡지·멀티미디어출판' 등의 기초과목에서 9개 과목 27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도서출판전공은 '전문서적 및 정보출판', '도서출판이익창출론', '도서편집', '상업 및 일반도서출판론' 등의 과목에서 최소한 3개 과목 9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잡지출판전공의 경우 '잡지재정관리론', '정기간행물 편집', '잡지발행부

수론', '잡지광고론' 등에서 3개 과목 9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전자출판전공의 경우 '전자콘텐츠개발론', '인터넷을 이용한 과학·기술·전문서적출판론', '웹마케팅 및 e-커머스', '온라인출판비즈니스론' 중 9학점 3개 과목을 최소한 수강하여야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뉴욕대학교 외에도 펜실베이니아 로즈몬드여대는 영문학 및 출판과정을 개설하고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대학원의 정규코스 외에 인문 관련학과에서 '출판역사', '출판과 문화' 등의 과목을 개설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 있는 대학원 등도 있으며, 아이오와 대학교의 '도서센터Center for Book' 와 같이 대학부설 연구소나 센터 등에서 출판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도 있다.

한편 영국의 경우, 브리티시 카운슬에 따르면, 학부에 출판과목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19개 대학교 309 과목이며, 대학원에 출판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11개 대학원 34코스가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런던시티대학교의 대학원에는 전자출판전공, 정기간행물전공, 출판연구전공 등이 개설되어 있어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플리머스 대학교, 옥스퍼드 브룩스 대학교 등에서도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미국이나 영국 모두 이러한 정규 대학과정 외에 직업훈련학교나 사설학원 등과 같은 곳에서 출판교육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미국과 영국 출판교육의 특성은 무엇보다도 전문성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처럼 '출판'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분야를 소화해 내는 것이 아니라 '출판'을 디딤돌로 해서 도서출판전공, 잡지출판전공, 전자출판전공 등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전문성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이들 교육과정은 디지털 기술에 매우 빠르게 적응하고 있으며, 철저한 실무교육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 출판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4]

이 글을 쓴 노병성은 현재 협성대학교 광고홍보콘텐츠학과 부교수로 있다. 주요 논문으로 <한국출판의 세계화 전략>(2002) <전자출판산업연구>(2000) <출판산업의 위상변화에 따른 정부정책의 근거 및 방향에 관한 연구>(1999) <1980년대 한국 출판산업의 산업조직론적 특성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논문) 등이 있으며 주요 저서로 《출판학 원론》(공저) 《현대출판의 이해》(공저) 《인터넷과 광고》(공저) 등이 있다.